선민이 흘리지 말아야할 것

(에스겔 16:1~63)

15.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6.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17.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18. 또 네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19.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21.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22.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선민이 흘리지 말아야할 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선민이 흘리지 말아야할 것’
휴게소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에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고전적인 강한 남성상입니다만, 이 말에는 울어야 할 때에 울 수 있어야 남자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흔히 흘린다는 말을 할 때에 눈물을 흘린다, 콧물을 흘린다, 밥알을 흘린다, 커피를 흘린다는 식으로 사용하지만 지갑이나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흘린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소문이나 정보 등을 유출시키는 것도 흘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용례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 밖으로 새나거나 떨어뜨리는 것을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눈물샘 안에 있던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커피나 밥알은 그릇이나 입 안에 있어야 할 것인데 밖으로 나오면 흘린 것이 됩니다. 지갑도 내 주머니나 손

안에 있어야 할 것인데 밖으로 떨어지면 흘린 것입니다. 소문이나 정보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면 흘린 것입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남성상에 빗대어 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여자는 웃음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윽한 웃음을 흘리면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보자면 여자의 웃음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찻잔 속에 커피와 같습니다. 배우자와 대면할 때에 그윽한 웃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까지 새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흘리다’라는 말에는 지저분함과 더러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결의 정의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가 바로 청결입니다. 흘린다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으로 나가게 된 상태로써 청결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이 눈물과 소변이고 여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입가와 눈가에 그윽한 웃음이라면 선민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을 흘린다는 것은 흰 셔츠를 입고 짬뽕을 먹다가 국물을 흘려서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선민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이지만 기쁨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찻잔에 담긴 커피는 향기를 내고 커피 맛이 느껴집니다. 기쁨으로 치자면 기쁨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 좋고 맛좋은 커피가 옷이나 바닥에 흐르면 지저분해 집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과 기쁨을 흘리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적합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부적합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기쁨을 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민이 기쁨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행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교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쁨을 흘리는 것은 종교를 넘어서 삶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킵니다. 돈을 벌어서 기뻐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영적인 행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본래 창세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산물입니다. 기쁨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기쁨이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커피라면 삼위일체 되심은 찻잔입니다. 잔을 들고 커피를 마시듯이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는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 기쁨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되심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기쁨을 돈을 벌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얻을 수 없는 돈이라는 대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쁨을 흘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형통해짐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또한 기쁨을 흘리는 것입니다. 승진해서 기뻐하려는 것도 마찬가

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행음이고 간음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행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팔을 움직여도 행음이고 다리를 움직여도 행음이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마다 행음이었습니다.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만 발생하는 기쁨을 다른 대상으로부터 찾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남녀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돌이 유랑민이었던 야곱의 가족 칠십 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30년 동안 250만 명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선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또 선민들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성장하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스겔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칠십 명을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태어난 계집아이로 비유하였습니다. 3절에서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을 이들에 비유했다는 것은 선민의 근본이 이들보다 전혀 나을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계집아이와 같았던 선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양육해서 왕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시내 산의 계약이 바로 선민이 하나님의 아내로써 왕비가 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된 선민은 온갖 사치스러운 귀중품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정든 자와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음의 정도가 어찌나 심했는지 죄악으로 멸망당한 대명사격인 소돔이나 사마리아보다 악했다고 합니다. 창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몸을 팔지만 선민들의 행음은 자발적으로 돈을 줘가면서 정부를 불러다가 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음의 내용은 우상숭배와 강대국들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강대국과의 동맹은 그 의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자신보다 힘이 세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강대국과의 동맹 또한 자신보다 강한 국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속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주체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선민의 행음의 수준이 창녀를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창녀는 불쌍한 처지로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지만, 선민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도 행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과 강대국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타는 욕정에 얻어 걸린 여러 정부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선민의 마음에서 불타듯이

일어나는 행음의 욕구였습니다.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도 하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나 강대국과의 동맹은 마음속에서 이미 일어나던 행음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행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외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속 행음은 다른 신을 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란 마음에 궁극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선민들이 좋아했던 대표적인 다른 신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부자 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 행음의 대상이 되는 다른 신의 정체입니다. 부자 되면 기쁘리라 믿고 부흥하면 만족하리라 믿는 것이 행음의 시작입니다. 마음에 이러한 행음이 있기에 몸을 통해 우상숭배나 강대국과의 동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이외에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대상이 다른 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음의 원천입니다.
인간의 기쁨과 만족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찻잔에 담겨있는 커피와 같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땅에서 돈을 기쁨으로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커피를 흘리듯이 기쁨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젖혀두고 돈이라는 정부와 행음하는 모습입니다. 선민들이 이렇게 마음에 다른 신을 품고 이 신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자 경영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사업이 다른 신이 되었고 행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민과 하나님이 남녀관계로 비유되었듯이 사람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얻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였기에 행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행음을 따른 결과가 다음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사업의 흑자 경영을 위해서 인재를 등용합니다. 혹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견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것은 우상숭배나 강대국과의 동맹과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인재도 찾지 않고 은행에서 투자금도 대출받지 않는다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출발점은 기쁨을 흘리느냐 아니냐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쁨을 흘리지 않고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 찻잔에 담긴 커피입니다. 사업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마음은 커피를 흘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흘리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사업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더럽고 추악한 행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쁨이 주어질 수 없고 갈등과 다툼만이 생겨납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옷에 묻으면 불쾌해지듯이 흘려버린 기쁨으로는 결코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됩니다. 자녀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좋은 학원을 알아보러 다니지만 그 내면에는 영적인 행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민들의 우상숭배나 강대국과의 동맹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행음이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계획과 추진이 행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을 통해 기쁘고자 한다면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면 행음하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행음은 종교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하는 모든 일은 행음입니다. 삶을 끝없이 더럽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음 없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민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공생애를 사셨지만 삼위일체 되심을 견고하게 유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쁨을 흘리는 일임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되심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이루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베드로라는 존재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삼위일체 되심에서 발생한 기쁨을 다른 곳으로 흘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운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들도 이루어야만 했던 행음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바리새인들과 만나셔서 논쟁을 벌이실 때에도 그 마음에서 삼위일체 되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바깥으로 흘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이기시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삼위일체 되심 안에서 바리새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표현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배고픈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풍랑을 만난 배 위에 계실 때에도, 성전정화를 하실 때에도 항상 삼위일체 되심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찻잔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찻잔에 담긴 커피가 향기를 발하듯이 하늘의 기운을 표현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 되심을 다이아몬드처럼 굳건히 유지하셨기에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떼어내려 하시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은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참여된 사위일체의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없다면 기쁨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는 대신에 겁도 없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기쁘리라 믿었고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얻기 위한 실제 행동을 했습니다. 우상숭배와 강대국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삶 전체가 행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행음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행음이 되어버립니다. 마음도 삶도 한 없이 더러워지는 죄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쁨은 삼위일체 되심의 특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되심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며 기쁨과 만족을 이루시는 관계에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게 되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또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 이루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는 사업은 내 마음에서 다른 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른 신이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행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나타난 계획이라면 인재를 등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고 하늘 기운의 표현이고 기쁨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써먹기 위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내가 가진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받을 때에도 이 기쁨은 표현되게 됩니다. 우선 마음속에서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서 생겨난 기쁨이 있다면 행하는 모든 일에도 하늘의 기운과 기쁨과 만족이 표현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는 대신 사업으로 기뻐하려한다면 그것은 기쁨을 흘리는 것이 됩니다. 결코 사업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돈이나 건강을 통해서 기쁨은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행음인 줄도 모른 채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추구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이고 강대국에 대한 의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음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한 순간 짜릿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짜릿함은 반드시 열배 백배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바뀌어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임을 알았으니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의 60~63절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은 심판을 통해 다 떨쳐버리고 어렸을 때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인격의 알맹이를 끌어다가 새 언약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리라는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율법을 다 뒤로 제쳐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지속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순절 기간에만 바라보고, 본문에 십자가가 나올 때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봄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 하나만을 지키면 모든 율법과 계명도 지켜지게 됩니다.
모세가 구리 뱀 장대를 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기쁨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의 죽음입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신을 붙잡고 행음하려고 하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지속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몸뿐만 아니라 지정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신바람이 납니다. 십자가를 지속하여 바라보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마음에서는 다른 신을 붙잡는 행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삶은 돼지우리에서 뒹굴면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선민은 기쁨을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신을 붙잡는 것이 기쁨을 흘리는 원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기쁘리라 믿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기쁠 것이라는 믿음, 자녀가 형통하면 기쁘리라는 믿음은 마귀의 전략이고 속임수입니다. 재정이 어떻든 자녀의 상태가 어떻든 십자가 붙잡고 마음으로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함으로써 사위일체가 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기쁨을 흘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행음을 근절하고 외적으로도 행음이 근절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기쁨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원한 새 언약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범사에 바라봄으로써 정말로 하늘이 표현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 모든 면에서 행음이 끊어지게 해주셔서 쾌청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